

“전세계 강타 ‘IT 대란’ 완전복구까지 몇주...유사사태 우려”

보안업체의 기기고장...“상호 연결성·집중화 문제 예시” 피싱 사기 경계령...“자동 업데이트 대신 점진적 방식 필요”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세계를 강타한 최악의 ‘정보기술(IT) 대란’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몇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해 기기·서버 800만대가 영향을 받은 이번 사태에 대해 20일 이같이 전했다.

블루스크린이 뜨며 먹통이 된 기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일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업데이트를 삭제해야 하는데, 피해 업체에 컴퓨터가 수천 대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할 IT 직원이 부족할 경우 며칠에서 몇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업체 위드시큐어의 미코 휘퍼넨은 “컴퓨터 수백만 대를 수동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 “최고경영자(CEO)용 컴퓨터를 비롯해 가장 중요한 기기는 이미 고쳤지만 일반 직원들의 기기는 수리 직원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출신 보안 전문가 에릭 오닐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3~5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가 컸던 것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용자들 가운데 대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해 말 기준 기업 고객 2만9천곳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포천 3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객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조지타운대학 맥도너경영대학원의 마셜 렉스 객원 연구원은 “크라우드스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 'IT 대란'이 특히 항공 분야를 마비시킨 가운데 주요 항공사들이 전산 시스템을 상당 부분 복구해 서비스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국제공항 유나이티드항공 창구 앞. /신화=연합뉴스

트라이크가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 사가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니 놀랍다”면서 상호 연결성과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IT 컨설팅업체 가트너의 닐 맥도널드

에널리스트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안업체가 실제 기기를 고장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기꾼들이 이번 사태를 악용해 MS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에 노출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피싱이란 실제와 비슷한 가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연합뉴스

美민주 내홍...與의원 12% 바이든 사퇴 촉구

“나라 위해 물러나라” 여론 폭발 우려에도 바이든 측 ‘완주’ 재확인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도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12명이 사퇴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마틴 하인리히(뉴멕시코) 상원의원과 하원 의원 10명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 토론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인종력 저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하루 사이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이 같은 목소리에 합류한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브라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의원 4명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후보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나이와 공직 수행의 신체적 적합성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우려가 승리해야 할 선거운동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공동 성명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

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의원이 가세하면서 이날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은 35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민주당 의원의 12%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굳어지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 많은 의원이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과 선거캠프는 이날까지도 내주 선거운동 재개를 시사하며 완주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티서 이주민 40명 보트 화재로 사망

무사 잠행 바라는 부두교 절차 중 사고 정황

극심한 치안 불안과 경제난을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이주민 40여명이 보트를 타고 이동 중 화재로 숨졌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지난 20일 밝혔다.

IOM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이티 북부 항구도시인 카프라이시앵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보트에서 불이 났다.

당시 보트 안에는 이주민 8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중 최소 40명이 사망

했다. 다른 탑승자 40명은 아이티 해안 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아이티와 가까운 미국 남동부 지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아이티 도착 종교인 부두교 의식 도중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안전하게, 당국에 들리지 않는 여정을 기원하고자 일부 이주민들이 종교적 절차를 밟는다”며 “이 과정에서 충돌 등이 드럼통 속 연료에 옮

아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이티에서는 ‘강단 무법천지’ 상황에 집을 등지는 이주민이 줄지 않고 있다.

경제적 기회 부족, 의료 시스템 붕괴,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현지 인권 단체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 남쿠타에서 추락한 관광 헬기.

인니 발리서 관광용 헬기 추락...전원 생존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에서 관광용 헬리콥터가 추락했지만, 탑승자 전원 생존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전날 발리 남쿠타 울루와투에서 관광용 헬기가 이륙했지만 5분 뒤 인근 페카투 마을로 추락했다.

당시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다. 5명 중 3명은 인도네시아인, 2명은 호주인이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지 당국은 헬기가 비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약 1만7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이 주요 교통·운송수단이다 보니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2021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스리위자야항공 여객기 SJ182편이 이륙 4분 만에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62명이 모두 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